

느헤미야 11장에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안에서 살기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표현대로 그루터기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한 사람들은 자신이 터 잡고 사는 집을 떠나 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훨씬 힘든 노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생길이 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헌신하기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공동체의 새 시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한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을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1.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을 통해 공동체가 새 시대가 열립니다.

1절 제일 먼저 헌신한 사람들은 백성의 우두머리입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가장, 아빠 엄마가 변화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회자를 시작으로, 목회자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그리고 목자들이 모범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솔선수범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게 된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뽑힌 인구의 십 분의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끔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잠언 16:1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공동체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리더도 아니고, 제비에 뽑히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십일조로 드려진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헌신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헌신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기득권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 6:10)

예수님이 진정한 헌신의 모델이십니다. 진정한 솔선수범을 보여 주셨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자원하여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10)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1/10(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1/15(토)	1/16(주일)
창25-27	창28-30	창31	창32-34	창35-37	창38-40	창41-42

QT

이번 주 QT 말씀

1/10(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1/15(토)	1/16(주일)
눅 2:41-52	눅 3:1-6	눅 3:7-20	눅 3:21-38	눅 4:1-15	눅 4:16-30	눅 4:31-44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나는 한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자원하여 헌신하여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세요.